

#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반영돼야”

무주 등 노선 경유 7개 지역 단체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 공동건의문 전달

무주군을 비롯한 옥천, 장수, 함양, 산청, 하동, 남해군 등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 대상 지역 7개군 단체장(이하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 협의체)은 지난 25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 협의체는 이날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남해선’은 대전·옥천·무주·장수·함양·산청·하동·남해를 잇는 총연장 약 203km의 단선 전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 4,655억 원 규모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포함한



무주군을 비롯한 옥천, 장수, 함양, 산청, 하동, 남해군 등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 대상 지역 7개군 단체장은 지난 25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내륙 산악지역과 남해안권은 그동안 철도 인프라에서 소외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산업·생활 기반 확충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라며 “대전~남해선이 구축되면 서울~남해간 이동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뿐 아니라 생활·경제·문화권을 하나로 연결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만큼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을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및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한편, 군은 이 자리에서 무주를 경유하는 전주~김천(1=101.9km) 철도 건설 사업 역시, 관광 수요 창출과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해양 위원, “지방교부세 페널티, 국도비 미매칭… 건전재정 맞나”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국도비 사업이 확정됐는데도 군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준 185억원에 달한다며 무주군이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부세 절감항목에서 축제성 경비 항목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24억36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 지방교부세가 줄었다.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27억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인건비 건전재정 항목에서 받던 인센티브는 그 폭이 전년보다 약 9억원 감소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감액되지 않았을 텐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지방교부세 평가항목에 지역상품권이 추가되는데 기획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양 위원은 이어 “국도비 미매칭 사업이 185억원인데 국도비 사업을 가

져와 놓고 매칭이 안돼 못한다면 건전한 재정이 아니다.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군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축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기획실이 이 문제를 적극 풀어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해양 위원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직후인 6월 9일에 기본소득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무주군은 6~8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움직였는데 총괄부서이고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의 대응은 부족했다. 이제명 정부의 기본소득 흐름에 우리가 발 맞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5분 발언을 할 때부터 신속하게 준비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양 위원은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군민 혜택과 무주군 예산 절감에 있어 큰 손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획실장의 답변을 받았다.

이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예산 증액에 주의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철저를 기해 건전재정 관리 운영을 내실화 할 것을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윤선 위원, “무주군 홍보 다양화·군민 원하는 정책발굴 기초 갖춰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무주군의 다양한 매력을 관광객이 쉽게 접하고 놓치기 쉬운 사업을 군민이 알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홍보방식도 바뀌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홍보인력의 전문화와 조직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볼거리, 시설물을 만들어도 대한민국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군민을 상대로 생활뉴스도 전달하는 등 홍보팀의 업무가 많아지는데 SNS 홍보인력은 한 명 뿐어서 부담이 된다. 상황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주군이 운영하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무주군

의 다양한 행사나 제도가 소개되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이어 무주군에 제안한 많은 사업들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고 “행정기관이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할 때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은 외부에 맡겨서 하는데 데이터만 가지고 도출된 사업과 군민이 원해서 발굴된 사업은 다르다. 수혜자 중심의 정책발굴 기초를 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민 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 행정이 군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가 불분명해 주민 사이에서도 대한민국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군민을 상대로 생활뉴스도 전달하는 등 홍보팀의 업무가 많아지는데 SNS 홍보인력은 한 명 뿐어서 부담이 된다. 상황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주군이 운영하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무주군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정주여건 개선 본격 나선다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장수군은 25일 계북면 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기관 관계자, 계북면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주요 시설 구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후 주민의 질의 청



취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립으로 인한 면내 주권환경 개선과 인구 증가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호응을 보였다.

‘참샘골 행복주택’은 덕유샘 학교 교교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체류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공공주거사업이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내년 5월까지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계북면 여진리 일원에 부지면적 2,396㎡, 연면적 1,356㎡, 지상 4층 총 18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주택 공급 유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80㎡(6세대), 45.51㎡(6세대), 55.77㎡(6세대)로 다양한 평형을 총별로 배치해 학생·학부모와 청년·고령자 등 여러 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딸기·샤인머스켓 재배 농가 현장 점검

전춘성 진안군수는 26일 오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부귀면 일원의 딸기와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날 부귀면 두남리 딸기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양액재배 시

설을 살펴보고,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해당 농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농가는 시설 활용 경험과 판매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실제 재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어 부귀면 세동리의 샤인머스켓 농가를 방문해 토경재배 비닐하우스 운영상황과 포도 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로 온정 나눔 실천

장수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올해 금가꾸기 사업장과 공공산림가꾸기 현장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 150여 톤을 취약계층 30가구에 땀감을 전달하는 ‘2025년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사업장과 공공산림가꾸기 현장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 매년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산림 경관 향상 및 산림 내 연소물질을 제거해 겨울철 산불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등 복지 지원과 산림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랑의 땀감은 목재보일러나 아궁이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정리 과정을 거쳐 공급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읍면 수요 조사를 통해 수혜 대상자 30가구를 선별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가구의 경우 행정 차량을 이용해 땀감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적응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군은 관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공모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치열페인트 도장사업 2개소, 고정식 쉼터 설치사업 1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사업비 총 1억2,600만 원(국비 6,300만 원, 군비 6,300만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